

...about... 생리휴강!

아래는 각 대학 총여학생회(여성국)에서 준비하는 <생리휴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동아대의 생리휴강 탄생 - 도입- 진행 - 현황 단계를 설명한 문서입니다.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 각 대학 총여학생회 및 생리휴강제를 준비 중인 학생회(총학생회, 여성국)

발신 : 19대 동아대학교 총여학생회 ☎051-200-6764

생리휴강의 탄생

동아대의 생리휴강은 2004년을 준비하는 학생회 선거에서 당시 총학생회(한대련) 선본과 같은 계열이었던 총여학생회 선본이 **공동공약으로 내걸면서** 학우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학생회 선본은 여학우들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책을 총여학생회에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모든 구성원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총여학생회 선본과 합의하여 생리휴강을 총학생회와 총여학생회 공동 복지 공약으로 학우들에게 제안하였고 이후 총여학생회와 총학생회 학자추에서 실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몇 해 전, 한 대학에서 잠깐 동안 시행 했다가 학우들의 참여율 저조로 폐지된 이후, 당시에는 한 군데도 생리휴강을 공론화 하거나 시행한 대학이 없었기 때문에 학우들의 반응은 생소함과 거부감, 그리고 '생리휴강이라는 공약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우들에게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한 의식의 뿌리**를 잡는 것입니다. 의식의 뿌리란, 생리가 개인적인 문제인가? -> '아니다'라는 지점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공분만 모아지면 생리휴강의 실제적인 시행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생리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생리통은 겪는 사람이 알아서 처리해야할 문제이다

남학생은 생리에 대해 알 필요가 없다.. 라는 기존의 틀에 의하면 생리를 말하는 것도, 생리대를 사는 것도, 생리통을 표내는 것도 모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 모든 여학생은 생리를 한다 -> 생리통 때문에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 결석으로 처리되면 불리한 성적을 받을 수도 있다.

-> 결석 처리를 면하기 위해 매년 진단서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 생리통이 심해도 내색 한번 못하고 참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 사회의 동반자인 남학생이 생리에 대해 알 기회도 없었고 알 필요도 없다고 여기는 것은 잘못되었다.

->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일상적인 과정인 '월경'을 구성원들과 함께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사회로 나아가는 지성인인 우리 학우들에게 제대로된 성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기존에 고민 없이 여겼던 생리에 대해 우리 학우들과 의미 있게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식화와 정치화, 제도화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생리'라는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학우들의 마음을 어떻게 정치적인 것으로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학 내에서 '정치'라는 것은 딱 게 아니라 특정 요구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과 상통하는 의미입니다. 결코 총여 회장 혼자서 학교를 대상으로 싸울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생리휴강에 대해 많은 학우들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학우들 스스로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총여(여성국)는 그 힘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학적을 좌우하는 학교 행정에 건의를 하여 제도화로 정착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우들이 원하는'입니다.

생리휴강의 도입과 진행

동아대에서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1. '선거'라는 열린 공간을 통해 '생리휴강'이라는 이름을 알렸습니다

2. 학자 투쟁에서 총여 요구안으로 '생리휴강' 제시했습니다.

3. 상반기에는 '생리'와 '생리통' 등에 대한 정보를 학우들과 공유함으로써 "의식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 04년 1학기에는 생리통과 관련된 유인물과 일상적인 자보선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몸'이라는 주제로 여성주간을 진행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리통이 심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산부인과 무료 검진,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연극(피포먼스), 성교육 강연 등 계속적으로 학우들이 생리에 한번쯤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3. 상반기 말에 '생리휴강을 이렇게 시행하겠다', 는 내용을 곳곳에 선전했습니다.

4. 곧 생리휴강에 대한 대학우 설문조사 시행했습니다.

5. 방중에 학교 행정에 생리휴강제를 건의하여 통과되었습니다.

- 교무회의(각 행정처장과 단대학장이 모이는 의결기구)에서 '여학생이 총여에서 받은 생리휴강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자'는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그 전에 학생회와 가장 가까이 있는 행정처인 학생복지과장님을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 수업권은 교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교수님의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

요한 일인데, 교수님들도(학장님이죠) 이전에 학내에서 생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건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6. 2학기 개강과 동시에 ‘생리휴강 신청하세요’라는 선전을 한달 내내 진행했습니다.
- 7. 후속사업으로 생리휴강 평가 설문조사와 성(性)인식 설문조사를 진행 했습니다

※ 동아대는 아직 생리휴강이 구체적인 학칙으로 활자화된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면 출석부에 ‘생리휴강’이라고 기재되어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아서 생리통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도입 단계이지요. 생리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여학우들에 대한 지속적인 의식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학우들도 수업을 못 들으면 손해,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쓰는 분위기입니다.**

그 전에 남학우들의 반발도 많았고 우려도 있었기 때문에 생리통 때문에 힘들었던 여학우들이 한달에 하루만이라도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관점이 박혀야 합니다. 학우들을 위한 제도인데 학우들이 제대로 못써서 불명예스럽게 없어지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 동아대에서는 신청된 사안을 집계해서 엑셀에 보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단계에서 몇 명이 받아가고 어떤 과에서 많이 쓰고 있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 동아대는 캠퍼스가 세 개이기 때문에 각 캠퍼스 마다 한 군데의 단대 학생회실에 신청서를 비치하여 학우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올해 부터는 대부분의 학생회실에 신청서를 비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론 **전체 학생회 임원들에 대한 교양을 제대로** 진행해야겠죠.

※ 생리휴강을 단순히 생리통이 심한 날, 수업을 빠질 수 있도록 해준다, 는 논리로 머무르고 집착해 버리면 오히려 시행하지 않는 이만 못하게 됩니다. 생리휴강은 구성원 모두가 ‘생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질 때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학우를 대상으로 하는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행사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생리주기를 표시하는 팔찌를 만들면서 여성의 생리에 대해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여자친구의 생리주기를 알고 있음으로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여성을 먼저 배려해주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의식화 단계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생리통’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를 공연하면서 여성들이 왜 생리통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생리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등을 감각적이고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내에서는 겉으로 보이지 않게 ‘생리, 생리대, 생리통’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고 몰랐던 것은 알아가고 말하지 못했던 것은 말하게 함으로써 학우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의식화 흐름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생리는 중요하다! 생리는 아프다! 생리기간에 쉬게 해달라!’는 구호만으로 다가가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생리휴강이 시행되면 학우들 스스로가 우리 학교에 생리휴강이 있어서 자랑스럽고 좋다, 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 학우들은 생리를 부끄럽고 감추어야 할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최종적인 목표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 **간혹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는 교수님도 계신데** 그런 경우는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되려 여학생에게 무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교수님께 왜 생리휴강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현재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바란다는 말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회의 하면 기층까지 전달되는 데 착오가 생길수도 있듯이 교수님도 생리휴강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총여에서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도 좋고, 생리휴강 도입 단계에 전체 교수님께 팩스로 공문형식의 협조문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교수님의 수업권은 총장님도 제어할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학칙으로 활자화할 수 없는 부분도 여기에 맞닿아 있는데 ‘생리휴강 신청서를 낸 학생은 결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교수님들에게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교수님들의 이해를 모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교수님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분도 물론 많습시다.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는 교수님께는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면 곧 누구보다 훌륭한 지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받아주지 않는 교수님을 비판만 한다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교수님도 우리 대학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면서 생리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열매를 쥐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학우들에 대해 오남용을 금하는 의식화 사업 뿐 아니라 **교수님들에 대한 협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길 바랍니다.

※ 사실 교수님들께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빠졌다고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점수에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부끄럽게 신청서를 꼭 내야하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생리휴강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물론 신청서를 내는 것과 몰래 얘기하는 것은 점수의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 수업 출결적으로 몇 점이 가감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편견을 정치적인 것으로 공론화’** 하고 **‘생리휴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생리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문제를 공적으로 보장받는 제도화’**의 문제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여성의 생리를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의 생리’가 갖는 의미 또한, 인류를 이루는 절반의 문제이고 우리 대학을 구성하는 절반의 문제이며 그들의 학습의 문제이고 노동의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고 사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엔 부끄러워하더라도, 학우들이 당당하게 생리휴강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힘을 실어 줘야 합니다.

03-11월	04-방학	3월	4월	5월
선거	의식화	정치화	의식화	여성주간
생리휴강 공동공약제시	생리휴강이란 무엇인가, 인터넷 의식화 사업	생리휴강 내용의 개 강신문 배포 학자투쟁에서 총여학생회 요구안으 로 생리휴강 제시	생리통에 좋은 제조 배 우기,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생리통과 관련된 사연 공모 사업	'여성과 몸'을 주제로 한 행사 - 생리통 심한 여학우 산 부인과 무료검진, 생리통 에 대한 퍼포먼스 공연
6월	방학	9월	10월	이후
실무점검	제도화	생리휴강제 도입 여성주간	1차 집계	후속사업
총학 학자추와 함께 총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교수님께 제출하는 것으로 최 종 정리	사전에 학생복지과에 서 실무점검을 하고 교무회의에서 신청서 를 내면 출석으로 인 정'하는 내용을 통 과	생리휴강을 알리기 위한 구성에 성교육 강연, 설문조사 실시	한달동안 진행된 사안 집계하여 학생복지과에 보고	생리휴강에 대한 평가 설 문사업 비협조 교수님께 협조 공 문 보내기

동아대 생리휴강 현황

2004년 하반기 (1학기 동안 진행했습니다)

9, 10, 11월
총 560장
총 380명

하루 평균 9 ~10명

※ 1인 평균 1-2장 받아갑니다

※ 신청서를 보시면 윗부분에는 학생복지과장님의 직인과 총여회장의 직인을 찍는 란이 있습니다. 복지처장님의 도장은 미리 여러장 받아 놓고 신청자가 오면 총여직인을 찍어서 윗부분을 오려 줍니다. 점선 아랫부분은 총여에서 보관하여 시기별 집계를 내는 자료로 씁니다.

※ 만약에 하루를 모두 빠졌으면 그 날 해당 수업 수 만큼 받아가서 제출해야 하고,

제출은 결석한 날의 다음 수업시간 전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 한 달에 하루에 해당하는 분량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총여에는 학우들이 수시로 가져갈 수 있도록 생리통과 관련된 유인물과 생리통 약, 생리대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신청서를 받으러 온 학우에게 '생리통이 얼마나 심한지', '평소에는 어떻게 참았는지', '여휴를 쓰는 데 불편함은 없는지' 등을 물어보고, '신청서를 냈을 때 교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다시 총여로 가져오라'고 해서 비협조교수님 목록을 만들고 있습니다.

※ 생리휴강에 대한 평가 설문 결과에 의하면,

생리휴강을 써본 전체(1만명)의 25%(4백명) 학우 중 24%가 생리휴강이 도입된 이후 생리통을 멍멍하게 이야기 할 수 있고 생리 때문에 출석점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여학생들이 생리휴강이 계속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생리통이 심한 날에는 꼭 쓰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생리휴강이 도입되기 전 보다 많은 남학생들이 생리나 생리통에 대해 관심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는데 생리휴강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생리통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 향후 계획으로는,

새내기 예비대학에서 생리휴강을 알려내는 선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대의 특성에 따라 성관련 강연을 생각하는 곳도 있고 자보 선전이나 유인물을 준비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간부수련회나 단대운영위 등의 공간에서 차기 학생회 집행부들을 대상으로 '학우들에게 생리휴강을 제대로 알리자'는 내용의 의식화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강에 대한 간단한 정보는 싸이월드 게시판이나 과 카페 등의 인터넷을 통해 퍼나르고 있습니다.

▶05, 1 동아대학교 19대 총여학생회